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51 호 현대불교 A17
2019년 7월 3일(6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모든 업을 녹이고 자성을 발견하려면

질문 모든 업을 녹이고 자성을 발견하려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처님께서는 "고, 집, 멸, 도" 이랬습니다. 고덩어리.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왜 '고' 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악업 선업이 거기 포함해서 여러분 육신의 세포에, 이것이 인간에게도 혹성과 같아서, 이 육신으로 봐서는 이게 법망입니다. 세균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세포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악업 선업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인연이든 자식의 인연이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고 이런 인연들, 또는 짐승이 사람 되고 사람이 짐승으로 퇴보되고, 병신으로 퇴보되고, 승화되고 이러한 인과가 모두 접해서 거기에서 수십억 마리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즐거운 일도 생각이 나오고, 때로는 속상하는 일도 나오고, 때로는 아주 우환이 생기고 때로는 병고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수없이 발산을 합니다, 그 악업 선업에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에 속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환상에 속지 말라. 모든 거,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거기 놔라. 이렇게 '방하착 하라' 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해야만 되나. 우리는 모든 거, 거기서 나오는 거든지 또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든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생존도 있고 부처도 있고, 모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먼저냐?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놓는다. 거기 맡겨 놓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니까,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안 하면 공덕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타력 신앙으로서 믿는 분들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복은 좀 받을지언정,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 업보를 녹일 수도 없거니와 이 모두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자기 이 모든 그 수십억 마리의 악업 선업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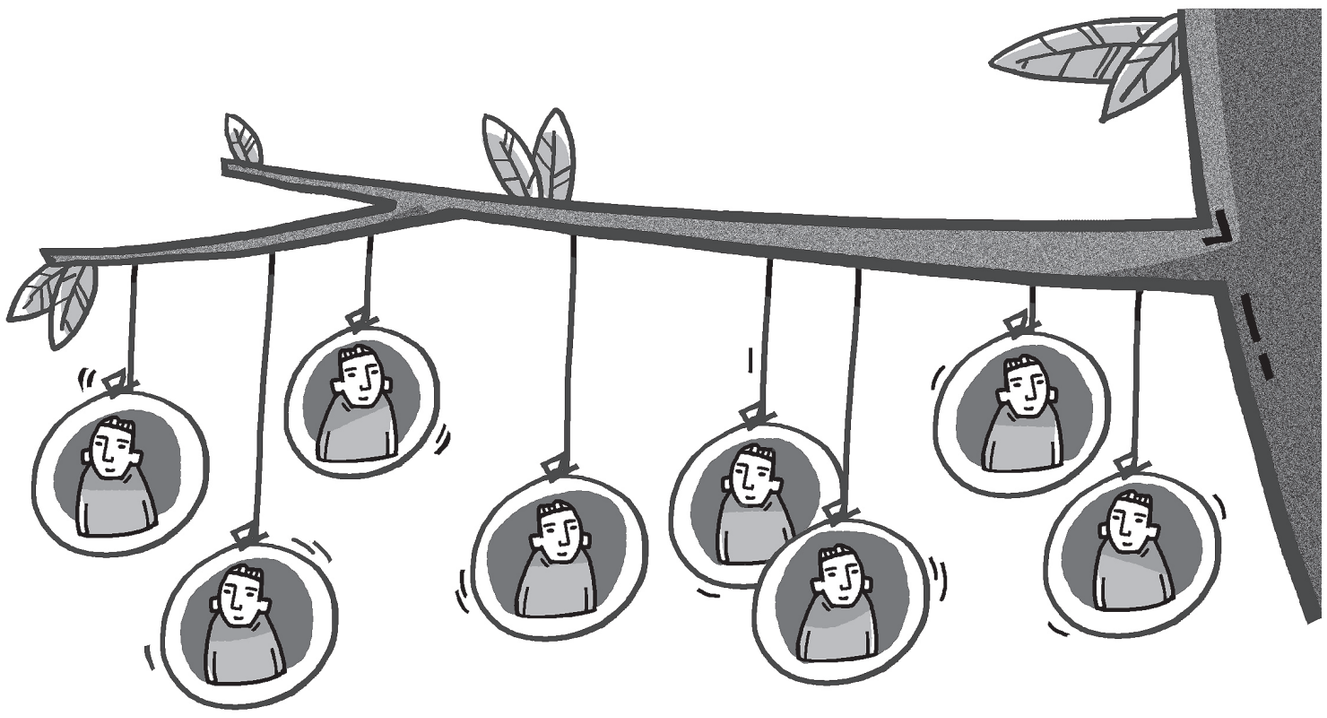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악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한 마음이 나오든지, 선하게 마음이 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내 주인공만이 나를 악하게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잘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신 안 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 라는 아집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나라는 아집만 버린다면 거기 뭐 붙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는 것만 죽는다면 뭐가 붙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따로 놓고, 내 주인공에 나도 놓고 나오는 대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대로,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하나하나 놓는다면, 그 수십억 마리 중에, 육신 속에서는, 즉 말하자면 간장 공장이니 위 공장이니 이자 공장, 방광 공장, 소장 공장, 대장 공장 이 공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내 마음, 그 지배인 사장은 항상 두뇌로부터 사대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에 놓는다면 하나하나가 자동적으로 진화돼서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놓지 않는다면 자기가 악업 선업 지은 대로 독 안에 들어도 면칠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용광로에 쇠를 넣듯이 그러면 쇠가 생산이 돼서, 새 쇠로서 생산이 돼서, 또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나가듯이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중생들도 보살들로 화해서 털구멍을 통하고, 목구멍을 통하고, 콧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것을 다 녹인다면 금강신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그것을 다 녹일 때는, 그렇게 녹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철저하다면 우리가 물이 없는 아주 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물을 촉촉이 주는 거와 같다. 돌을 골라내는 거와 같고, 체로 치는 거와 같고, 또는 풀 뽑아 버리고 고렇게 해서 잘 물을 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갈라지지도 않고 손색이 없이 싹이 나와서 바로 발현이 돼 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열리고, 물을 먹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을 깨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질문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제게는 좀 생소한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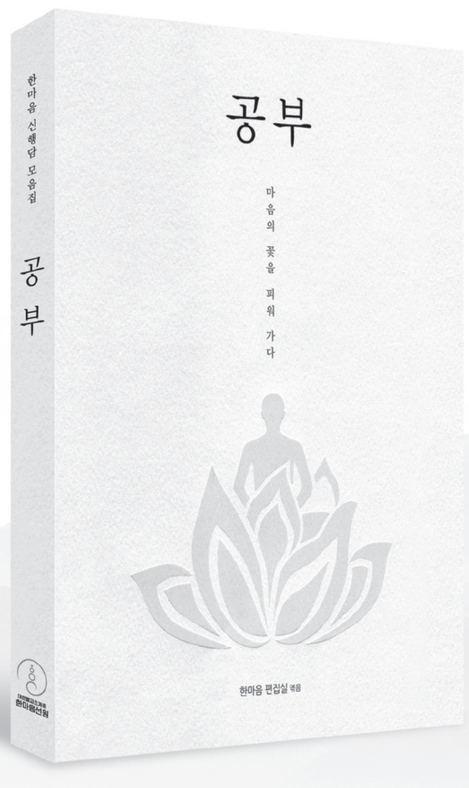
답변 보통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현재 의식에서만 알거든요. 거기서 복작복작하다가 해결을 하고 거기서 복작복작하다가 그냥 병이 들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견으로 살아라. 소견으로 살면 병든다." 이러는 겁니다. 또 소견으로 살면 모든 게 나한테 다복하게 오질 않아요.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 쪽에다가 조금만 여유 있게, 뭘 하면서도 생각은 급히 하면서, 회사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다가 좀 '아하!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도 바로 내가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몸은 비록 어머니 아버지한테서 뼈와 살을 빌려서 몸이 났어도 내 몸속의 수십억 마리에 관한 의식은 바로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내 몸뚱이 속에 모두 이렇게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배인과 같아서 내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모두 따라 줍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따라 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포용력 있게 해 나가는 것, 바깥에서 따라 주고 이렇게 해서 안팎이 없이 이 생활을 진행하는 것이 그 삶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 자유인의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절에 오면 삼배를 하게 합니다. 즉 말하자면 "법당에 들어오면 삼배를 너희 스스로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일배는 모든 천지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직결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공생이자 공심이다 이겁니다. 우린 혼자 사는 게 없어요, 독불장군 없듯이.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있듯이, 사장이 없는데 직원이 어떻게 삽니까? 직원이 없는데 사장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은 공생 · 공용 · 공심 · 공체 · 공식화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이게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내 자성 삼보에 귀의한다.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내가 마음을 내면 법, 마음을 내니 몸뚱이가 움죽거리니까 승. 이래서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겁니다. 자기 삼보에 귀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결국은 고개를 숙여서 자기가 겸손한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는 거지, 이 고깃덩어리한테 뭘 하게 절을 하겠어요? 이걸 대상을 두고서 한번 이 몸뚱이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다가 내가 겸손하게, 즉 말하자면 지견으로써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주인공에 자기가 바로 절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내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밖에는 해결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